

“괴로움, 피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밝은사람들연구소
학술연찬회에서 한목소리

모든 사람이 겪어야 하는 괴로움, 그 괴로움은 어디에서 오며 그 근원은 어디일까?

밝은사람들연구소(소장 박찬욱)와 서울대학원대 불교와심리연구원(원장 윤희조)이 12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제 8회 학술연찬회에서는 '괴로움, 어디서 오는가'를 주제로 초기불교와 선불교, 기독교를 포함한 서양철학, 심리학과 진화심리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괴로움에 대한 근원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서 8명의 학자들은 괴로움은 인간이 피해야만 하는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제안했다.

먼저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 불교학과 교수는 초기불교의 입장에서는 사성제중 '집'이 '갈애·집착·느낌·자아관념'이며 이들이 서로 연결되고 중첩되며 고통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고'는 '무상(無常)이 일으키는 불만족상'의 의미로 풀이되며 넓은 의미에서 즐거움도 포함된다고 밝힌다. 정 교수는 초기불교에서는 심리적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궁극 목표로 하며 그런 점에서 불교는 결코 염세주의가 아님을 역설한다.

은혜사 기가암 선원장 월암 스님은 선불교에서 '번뇌 즉 보리'의 불이법문, 고와 낙의 불이중도를 주장했다. 월암 스님은



밝은사람들연구소는 12월 21일 '괴로움'을 주제로 학술연찬회를 개최했다.

초기불교 '고애는 즐거움도 포함'

선불교 '중생부처요, 번뇌 즉 보리'

가톨릭 '인간 유한성으로 고통 당연'

번뇌의 공성(空性) 및 번뇌와 깨달음이 둘이 아닌 점에서 선불교와 대승불교의 입장이 같으며 번뇌의 공성을 자각함으로써 번뇌에 기반한 고통을 이겨나가는 것이 선종의 관점이라고 밝혔다.

월암 스님은 "달마선에서 조사선으로의 이행은 중생 불각의 입장에서 부처 분각의 입장으로 바뀌는 과정"이라며 "번뇌는 곧 보리이라는 관점에서 이에 기반한 고통을 이겨나가는 것이 선종"이라고 접근했다.

박승찬 가톨릭대 철학과 교수는 고통이 선천적, 후천적의 두 부분으로 나뉘며 이

에 따라 극복방안이 다르다고 제시했다. 박 교수는 "인간의 유한성에 의해 수반되는 고통은 성숙한 자세로 수용하며 인간 상호협력력을 통해 지양돼야 할 고통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말했다.

전종환 경희대 교수는 진화심리학에서 괴로움의 원천을 4가지로 분류하고 그 괴로움을 원인을 제거하는 효과적 방안이 찾아질 수 있으리라는 낙관적 기대를 제시했다.

권석만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인간의 삶이 괴롭고 힘든 이유를 인류, 한국사회, 개인 차원으로 범위를 좁혀가며 논하고 인지행동치료에서 제시하는 괴로움 극복의 길로서 '인지적 재구성'과 '행동적 변화'를 설명했다. 특히 그는 고통의 원인 및 해결책을 물질이나 신이 아닌 인간 마음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심리학과 불교의 유사성을 역설했다.

노덕현 기자

이애주, 전통춤의 백미 승무 완판 공연

1월 6일~7일 아르코예술극장서



중요무형문화재 제 27호 '승무' 예능보유자 이애주 명인이 2014년 새해를 맞아 50분 완판 승무를 선보인다. 한국전통춤회가 주최하는 '이애주춤 천명'은 1월 6일~7일 저녁 7시30분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열린다. 1월 6일 완판 승무·본살풀이를 7일에는 승무·살풀이·태평무를 선보이는 이애주는 60년을 이어온 50분의 춤 완판 승무를 유감없이 보여줄 것이다.

특히, 이번 6일 공연에서는 무대 위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50분 완판 승무를 선보인다. 한국전통춤회는 "이애주가 지난 60년 동안 진행한 완판 승무의 무대는, 승무를 왜 전통춤의 백미로 꼽는지를, 승무를 왜 인생의 모든 것이 응축된 춤이라고 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전한다. 이밖에도 이애주는 바람맞이 '씨름' '상생춤' '길닦음' 등의 춤을 보여준다.

한편 이애주 명인은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예능보유자로 서울대 명예교수이자 한국전통춤회 대표다. 1984년 '춤패 신'을 창단 '나눔 톨'·'도라지꽃' 공연을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바람맞이' 공연을 했다. 2003년 만해대상을 수상했으며 2012년 서울문화투데이 문화대상(전통부문)을 수상했다. 관람료는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02) 564-0269

정혜숙 기자

〈한국불교학〉 제69집 원고 공모

한국불교학회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학회지 〈한국불교학〉 제69집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한다. 원고 모집 분야는 불교학, 불교사학, 응용불교 3개분야로 원고마감은 12월 26일까지다. 〈한국불교학〉 제69집은 2014년 2월28일 발행될 예정이며, 한국불교학회에 연회비와 심사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해 투고 자격이 주어진다. 〈한국불교학〉은 매년 2월 28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등 네 차례 발간된다.

노덕현 기자

BBS 인천지역 방송 개시

BBS 불교방송은 12월 24일 BBS FM방송국 준공신고를 완료하며 인천지역에 방송을 개시하게 되었다. 이는 지난 7월 31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인천중계소 허락을 받은지 5개월만이다.

이제 BBS인천중계소 설립으로 88.1MHz를 통해 인천 지역 불자들도 맑고 또렷하게 법음과 교계뉴스, 다양한 부처님의 말씀, 불가를 청취할 수 있게 되었다. 구체적인 지역으로 인천광역시 남구, 동구, 중구 일대와 서구, 남동구 일부를 추가로 확대하였으며 수도권 서부지역 언저리든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할 수 있다.

BBS는 "인천광역시와 인천지역 대부분이 해소되었으며 부처님의 법음을 전파하여 중생의 보살화, 사회의 정토화를 추구하고자 하며 참된 가르침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시비 소리 들릴까 물소리 온 산 에워싸네

천년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불교와 유교는 동양의 문명시대를 견인해 온 양대 축이다. 석가모니 고타마시타르타(B.C 563~B.C 483 추정)의 시대와 공자(B.C 551~B.C 479 추정)의 실존시대가 엇비슷한 것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두 성인의 위대한 가르침은 종교와 철학은 물론이고 세계관과 통치이념, 윤리도덕, 문화예술 등 광범위하게 동양역사의 대간을 이루었다.

우리나라에 불교와 유교가 전래된 시기도 그리 다르지 않다. 기록상 전하는 불교 전래는 372년(고구려 소수림왕 2)인데, 묘하게도 고구려는 같은 해에 국립 유학 교육기관인 태학(太學)을 설립했다. 이 또한 우연인지 필연인지 알 수 없지만, 이 땅에 들어 온 불교와 유교는 곧바로 이 땅의 역사를 끌고 가는 축이 되었다. 그 길항(拮抗) 속에는 대립과 화해의 잔상이 공존한다.

고려는 불교에서 통치 이념을 찾았고 조선은 유교를 절대시했다. 그 천년의 시간과 공간속에 형성된 문화유산은 우리들의 거울이다. 찬찬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자화상이 보이는 거울.

불교를 이끌어 온 집단이 승려라면 유교를 주도해 온 집단은 선비들이다. 많은 선비들이 시대와 이념적 간격에 상관없이 산사를 찾았다. 그리고 산사의 풍경이나 불교의 교의, 승려와의 친분을 제재(題材)로 시를 지어 남겼다. 선비들의 시를 통해 불교와 유교가 어떻게 만났고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살펴보는 일은 흥미롭고 나름의 가치를 지닌다 하겠다.

천 년이 넘는 시간을 지나오며 산사라는 공간에 알알이 박힌 선비들의 시심을 탐구해 가는 여행. 그 첫 여정은 우리나라 한문학의 종주(宗祖)로 추앙되는 고운 최치원(崔致遠, 857~?)의 시심이 깃들어 있는 가야산 해인사가 마땅할 것이다.

육두품의 성공과 좌절

사람들은 왜 그가 신선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는가? 살아서 불행했던 사람, 죽어서라도 신선으로 만들어 주고 싶은 집단적 연민일까? 신선이 된 그를 통해 위로받고 싶은 것이 많아서 일지도 모르겠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살이 끈고(困苦)한 것은 마찬가지고, 이루고 싶은 꿈을 다 이룰 수 없는 것도 다를 바 없으니까.

신라의 수도 경주에서 태어난 최치원. 그의 죽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이 40세에 가야산 홍류동으로 가족을 이끌고 들어가 은둔하던 그는 어느 날 숲에 관(冠)과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고 사라졌다. 그래서 신선이 되어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숲으로 들어갔다느니, 하늘로 올라갔다느니 하는 얘기만 전해질 뿐이다.

임연태 시인 山寺에 갖든 선비의 詩心

① 최치원과 해인사 ①



지관 스님이 1996년 해인사 농산정에 건립한 최치원의 일대기를 기록한 비석

"신이 열두 살에 집을 떠나 서쪽으로 가려고 배를 탈 때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훈계하기를 '10년 동안 공부하여 진사에 급제하지 못하면 나의 아들이라고 하지 말라. 나도 또한 아들을 두었다고 말하지 않겠다. 가거든 부지런히 공부하며 힘을 다 하거라' 하였습니다. 신은 그 엄격하신 훈계를 마음에 새겨 조금도 잊지 않았습니 다. 상투를 대들보에 걸어 매고 송곳으로 허벅지를 찢어가며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 다."

는 해외파 신진 지식인의 성장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지금의 전북 태인과 충남 서산 등지의 군수로 몇 년을 떠돌던 최치원이 둔세(遁世)를 작정하고 선택한 곳이 가야산 홍류동 계곡이었다. 산이 크고 골이 깊은 것도 이유였겠지만 무엇보다 그곳에는 해인사가 있었다. 화엄종 사찰인 해인사에는 친척 되는 현준(賢俊)이라는 스님이 있었고 정현(定玄)이라는 스님과도 도우(道友)를 맺었다고 전해진다.

광분척석후중만(狂噴噴石吼重巒) 인어난분지척간(人語難分咫尺間) 상공시비성도이(常恐是非聲到耳) 고교유수진룡산(故教流水盡龍山)

침철 바위 사이를 미친 듯 달려 걸음 붓 우리 울리니, 지척에서 하는 말소리도 분간하기 어렵구나.

속세의 시비 소리가 흑시라도 귀에 들릴세라, 짐짓 흐르는 물로 온 산을 에워싸게 하였다.

- '제가야산독서당' <동문선> 19권

홍류동 계곡, 해인사 아래쪽 물가에 위치한 농산정(籠山亭)은 최치원이 둔세하던 곳으로 시에 나오는 독서당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전한다. 최치원이 농산정 맞은편 석벽에 새긴 이 시는 둔세시의 상징이다. 흐르는 물소리로 온 산을 둘러싸 시비하는 세속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했다는 절묘한 표현. 최치원이 아니고는 누구도 할 수 없을 절정이다.

[불기2558년] 謹賀新年

부처님 제자들이 희망입니다.

강한 인문학과 따뜻한 과학
동국대학교 융복합교육으로 키워낸
부처님 제자들이 세상의 희망이 됩니다.

dongguk UNIVERSITY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우
사 부 대 중 일 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31길 56 (수서동) 전국비구니회관 법륜사
☎ (02)3411-8103~4 www.kbiguni.org